

“출처만 안 밝히면 트위터에 올려도 좋다”

열린 논의 지향하는 '채텀하우스 룰' 돋보여...
셰브론·골드만삭스·BBC 등 각계 유명 기관이 회원

런던=김상진 월간중앙 기자 [kine3@joongang.co.kr]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문제연구소'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인 채텀하우스에 따라붙는 수식어다. 전 세계 우수 기관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를 찾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는? 아마도 영국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가 아닐까? 까만 대문에 번지수를 뜻하는 숫자 10만 덩그러니 쓰여 있어 '넘버(Number) 10'으로 불리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곳이다. 현 주인인 데이비드 캐머론을 비롯해 수많은 역대 총리가 이곳을 거쳐갔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가 자리한 세인트 제임스 스퀘어 10번지 역시 다우닝가 10번지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에로스상으로 유명한 피카딜리서커스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 이곳 인근에는 세계적 경매장인 크리스티, 영국 왕실에 차(茶)를 납품하는 포트넘앤드메이슨 등 명소가 많다. 또 BP·리오티토그룹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도 있다.

연구소 건물은 18세기에 유행한 조지안(Georgian) 양식이다. 세월 탓인지 빨간 벽돌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웠다. 연구소를 상징하는 짙은 푸른색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현관 역시 '블루'다. 그런데

깃발과 현관에 쓰인 연구소 명칭이 다르다. 현관에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 돼 있지만 깃발에는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로 쓰여 있다.

건물 외벽에 붙은 현관은 그 이유를 가늠케 한다. 윌리엄 피트(대피트), 에드워드 스탠리, 윌리엄 글래스톤, 이 세 총리가 이곳에 살았단다. 첫 주인인 피트 총리는 별명이 '위대한 평민(The Great Commoner)'인 정치가였다. 그런 그가 1766년 작위를 받아 '채텀 백작(Earl of Chatham)'이 됐다. 그래서 채텀하우스다. 사실 왕립국제문제연구소는 본래 이름보다 이 채텀하우스로 더 알려졌다.

총리 3명이 살았던 '채텀하우스'

나머지 두 주인 중 스탠리 총리는 아편전쟁의 주역이자 '현 보수당의 아버지'로 불린다. 총리직을 4차례(12년) 역임한 글래스톤은 윈스턴 처칠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총리에 꼽힌다. 최고지도자 세 명이 거쳐간 이력답게 비밀이 많을 듯했다. 더

군다나 채텀하우스는 1920년(전신인 브리티시국제문제연구소, 1926년에 왕립 칙허장을 받음)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문제연구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비밀이 없다. 오히려 개방적이다. 이른바 '채텀하우스 룰(rule)' 때문이다. 채텀하우스가 주관하는 세미나·콘퍼런스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는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해도 들은 이상 외부에 그 내용을 발설해도 무방하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여도 상관없다.

단 어떤 기관의 누가 말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즉 출처와 참석자 신원 누설은 절대 금물이다.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을까? 로빈 니블렛 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만들어진 채텀하우스 룰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했다"면서 "참석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하도록 격려하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특정한 또는 특정그룹에게만 정보가 귀속되지 않고 모두 공유하

게 됩니다. 특히 이 규정은 정부 관계자가 비정부 참석자들과 생각을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내용도 비공개(off the record)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공개라면 정보를 들은 당사자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록해 대외에 공표할 수도 없습니다. 채텀하우스는 출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그 정보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핵심적인 정보가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리셉션 데스크 아래에는 채텀하우스 룰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심지어 뒤에 전등을 켜서 방문객 누구에게나 보이게 했다. 채텀하우스에서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다. 왕립기관에도 등급이 있단다. 왕족 중 누가 후원하는가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진다. 채텀하우스의 경우, 현관에서 마주 보이는 복도 끝에 '엘리자베스2세'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복도 여기저기에는 채텀하우스가 어떤 연구소인지 알리는 자료가 많았다. 가령 어떤 기관이 참여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상위인 16개 협력 법인 중에는 BP·셰브론·엑손모빌·로열더치셸 등 메이지석유사가 눈에 많이 띄었다. 이들은 다른 멤버십 법인과 달리 채텀하우스의 연구 프로그램과 콘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연간 회비 1만2000파운드(약 2200만원)를 내는 49개 주요 법인 회원. 바클레이스·HSBC·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금융회사와 노무라·미쓰비시·미쓰이 등 일본계 기업이 있었다. 또 여기에는 BBC·블룸버그·이코노미스

트·톰슨로이터 등 언론사도 참여한다. 연회비 2750파운드(약 500만원)를 내는 일반 법인 회원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들 회원 중에는 주영 한국 대사관 등 런던 주재 외국 대사관도 상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장기 프로젝

트의 경우 후원 기업이 따로 붙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글로벌 기업 등 각종 법인이 채텀하우스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관계자는 "이런 거대한 양적·질적 스폰서십이 글로벌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귀띔했다.



영던 런던 세인트 제임스 스퀘어 10번지에 위치한 채텀하우스

2008~2009년 기준으로 채텀하우스의 연간 총수입은 710만 파운드(약 129억원)였다. 이 중 51%가 연구 프로젝트로 벌어들였다. 회비(22%)와 콘퍼런스(13%) 수입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경제력 확대에 큰 관심 뒤...

채텀하우스는 연구와 토론, 두 바퀴로 굴러간다. 분석 결과는 브리핑·프로그램 페이지, 격월간 기관 저널 <인터내셔널 어페어즈(International Affairs)>, 월간지 <더 월드 투데이(The World Today)>,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연구소가 주관하는 공식 모임은 연간 100차례다. 또 회원을 대상으로 20차례의 1~2일 일정의 콘퍼런스를 연다. 이때 저명인사들이 강연에 나선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물론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같은 저명 학자,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같은 금융 수장 등이 연단에 섰다.

전문가 그룹과 정책 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리서치 프로그램의 경우 모임 횟수가 더 많다. 채텀하우스를 아래 매년 200여 차례의 워크숍·세미나·브리핑이 열린다. 채텀하우스 연구원들은 영국 의회 등에서 특별 브리핑을 하기도 한다.

채텀하우스의 연구 분야와 관련해 니블렛 소장은 “런던에 기반을 두지만 국제 관계의 여러 변화를 포착해 조사한다”면서 “영국 정부의 정책에만 중점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부상, 미국 정권의 쇠퇴, 유럽 연합(EU)이 마주한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합니다. 가령 어떻게 하면 EU와 중국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이란과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 간



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렛 소장은 미국 CSIS 부소장을 지낸 안보 전문가다.

자원 경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채텀하우스의 중점 연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에너지·환경·자원 분야가 한 축이고, 경제와 안보가 또 다른 두 축을 이룬다.

“특히 인도·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세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의 균형 변화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변화가 달러·엔·유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 미국·유럽의 대아시아 투자와 아시아의 해외 투자 문제, 또 런던·뉴욕과 경쟁 중인 상하이(上海)·홍콩·싱가포르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 중심지의 부상 등을 연구 중입니다.”

본인 역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출신으로 5년간 부소장까지 역임한 안보 전문가인 니블렛 소장은 안보 분야 연구와 관련해 한반도 이슈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채텀하우스는 북한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인권 문제, 핵 확산, 경제 발전 등과 같은 주제들

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 견해로 북한 후계 세습이 가져올 심각성도 지적했다.

“현존하는 모든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힘이 없는데 그것을 가질려고 폭력을 휘둘러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그 동기를 이해하기 힘들죠. 후계 세습이 걱정스러운 이유도 이 일이 사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사망을 염두에 둔 듯) 김정은의 권력 계승에 관계하거나 그를 도와준 지도층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암살이라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심각한 수준의 권력 쟁탈전이 북한 내부에서 시작됐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고풍스러운 내부만큼 채텀하우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함 그 자체였다. 창밖의 국제 정치 사정은 연일 부산한데도 말이다.◎

사진: 김상현

인터뷰 | 동북아안보 담당 존 스웬슨-라이트 박사

“한반도 긴장 고조 뒤 美·中 생각 잘 읽어라”

연평도 사건 후 한·미·일 공조 강화... 日 정부 건설적 대북 접근에도 주의해야

최근 채텀하우스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더 월드 투데이> 2월호 이슈 중 한반도 관련 글을 홈페이지에 걸었다. 제목은 <희미한 희망(A Glimmer Of Hope)>. 저자는 아시아 프로그램 동북아안보 담당 연구원인 존 스웬슨-라이트 박사다. 그는 현재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채텀하우스는 ‘세계 제로’의 한반도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까? 1월 말 담당자인 스웬슨-라이트 박사와 이메일 인터뷰를 나눴다.

—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됐다.

“인명 피해가 있는 교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경악했다. 연평도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평도 사건을 1970년대부터 늘 일어났던 서해교전 사건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려 한다. 북측 지도부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정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신뢰 구축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는 점이다.”

— 북한의 소행이 분명했지만 국제사회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한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한·중·일 순방은 미국이 적극



적인 외교를 통해 군사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 간 양자 군사회담 재개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걸 내켜 하지는 않는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만이 아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후 북한에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자체가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보여준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미국에 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후 동맹국인 한국·일본과 미국의 정치·안보 협력이 간접적으로 강화됐고, 한일 간 군사회담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난해 12월 2~3일 채텀하우스는 북한 관련 콘퍼런스를 열었다. 주제는 ‘북한

을 위한 인간안보 구상: 실질적 접근을 통한 인권 신장’이었다. 인간안보란 안보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국가가 아닌 인간으로 본다. 때문에 군축 이외에 인권·환경보호·사회안정·민주주의 등을 포괄한다.

—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달라.

“북미·유럽·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한반도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대북 경험이 있는 비정부기구(NGO)나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 문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 견해와 달리 대다수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번영을 위한 여러 접근법 중 포용과 대화를 비판적으로 봤다.”

— 한반도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하고 북한과 신뢰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현 일본 민주당 정권의 건설적인 대북 접근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성 장관은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북·일 관계 정상화를 방해하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합의에 따라 일본이 북한에 제공할 만한 경제 원조는 상당하다. 북한의 식량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